■ '2010 광주일보 신춘문예' 1,200여 편 뜨거운 열기

# 지역·연령층 다양 '국민 문학축제'로

**소설** 가정·동성애·다문화 등 주제 다양해져

**시** 사회현실 소재 작품 주 … 서정시도 강세

**동화** 응모작 지난해의 두 배·수준도 급성장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신춘문예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57년 전통의 광주일보 신춘문예가 이제, 새로운 국민적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본심을 맡은 심사위원들은 신춘문예의 신중흥기를 맞았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마감된(당일 우편 소인 유효)된 올해 신춘문예에는 시, 소설, 동화 세 부문에 걸쳐 총 1천200여편이 응모돼 지난해(757편)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신춘문예의 심사는 소설 부문에 한승원·임철우씨, 시 부문에 문태준·이문재씨, 동화 부문은 강정규씨가 맡았다.

이번 공모에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6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비문인들이 도전했으며 서울·강원·제주 등 전국에 걸쳐 작품이 응모돼 반세기를 넘긴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대한 열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대학생·주부 등 여성 예비문인들이 대거 참여해 두각을 나타냈으며 시 부문에는 모녀가 나란히 응모해 본심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심사 위원들은 "응모 편 수가 대체로 늘었으나 작품의 주제와 완성도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심사위원은 "문학·출판계가 불황인 상황에서 작품을 쓰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졌으나 독서의 양과 글 쓰는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소설 부문 심사위원들은 "어린이 성폭행, 가정해체, 동성애,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다"고 평했다.

응모작품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주문도 있었다.

소설 부문 심사를 맡은 한 위원은 "소설이 왜 감동적이어야 하는지, 소설이 무엇인지 즉, 소설문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쓴 작품이 많아 아쉬웠다"며 "독서라는 자양분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읽는 눈을 익혔으면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늙은 노동자 아버지가 등장하는가 하면,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해체된 가정의 문제, 재개발로 인한 철거민, 다문화가족 문제 등 사회 현실을 다룬 시가 주를 이루었으며 자연과 인간의 감성을 담은 서정시도 강세였다.

2010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본심이 지난 20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소설가 한승원(맨오른쪽), 강정규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심사위원들은 "작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고등학생, 20~30대 젊은이 등 차세대를 이끌 몇몇 예비문인들의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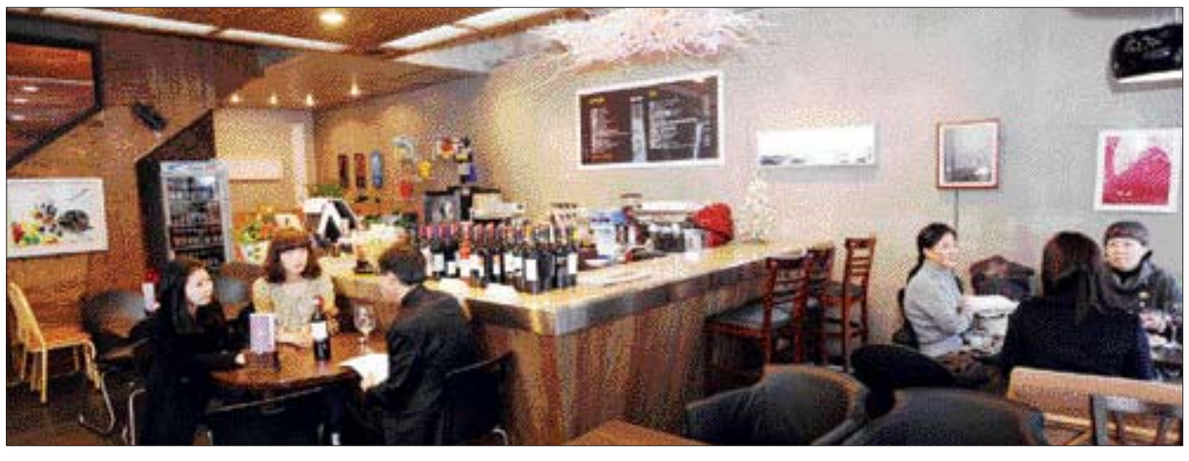
동화 부문의 성장과 수준 향상은 단연 돋보였다. 총 102편이 응모해 증가세(지난해 46편)가 뚜렷했으며, 그 수준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평이다.

동화부문 심사위원은 "이번 응모작들이 교육, 사라져가는 전통,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스토리텔링 능력도 우수했다"고 말했다.

또 "소설과 동화를 구분 짓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쓰기 훈련을 기능적으로 한 나머지 써내려가기보다는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어 가는 오류를 드러낸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문장구성에는 그리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당선작은 2010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2010년 1월 중순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음악과 시가 흐르는 갤러리에서 송년회를

나인갤러리 30일까지 이색 송년행사 마련

누구나 참여 가능 … 단체 송년모임 예약도

"음악이 흐르는 갤러리에서 작품 감상하면서 차분한 연말 보내세요." 카페형 갤러리 나인갤러리가 오는 30일까지 그림, 시, 음악이 어우러진 이색 송년 행사를 마련한다.

가족이나 단체 관람객들이 갤러리에서 가수들의 공연을 보고 작품 감상도 하며, 저물어 가는 2009년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이다.

먼저 강남구, 고근호, 박설, 박수만, 박태후, 유수종, 이매리, 정운학, 조진호, 최미연, 최재영, 한희원씨 등의 화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유수종씨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생생한 해오라비꽃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최재영씨는 핑크 계열의 색채로 화사한 느낌을 살린 아이 그림을 전시한다.

또 강남구씨는 화사한 색채와 리듬감 넘치는 강변 풍경을 선보이고, 박태후씨는 여백의 미를 강조한 참새 그림을 출품한다.

수니, 한종면, 김영훈, 김성훈, 김현정씨 등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매일 오후 7~8시)과 김현옥씨의 피아노 연주도 들을 수 있다. 시인 나희덕, 강경호, 고재종, 정윤천씨의 감미로운 시낭송도 곁들여진다.

성탄절 전야인 24일 오후 6시에는 철학박사 이선씨가 '니체와 바그너'를 주제로 철학 강의도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전예약을 통해 단체 송년 모임도 가능하다. 차와 와인 등 음료는 유료.

문의 062-232-232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시향 협연무대 … 공개 오디션 5명 선정

피아니스트 서현일·첼리스트 장소희·바순 김현진·플루트 최지혜·소프라노 오송하

클래식 연주자들의 경우 독주회나 실내악 무대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갖는 것 역시 귀한 경험이다. 하지만 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갖는 건 좀처럼 얻기 어려운 기회다.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이 지난달 28일 광주·전남 지역 출신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실시, 모두 5명을 협연자로 선정했다. 지금까지 초·중·고·대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이 5년전에 열린 적은 있지만, 성인까지 폭을 넓혀 오디션을 진행한 건 처음이다.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피아니스트 서현일(26)씨는 광주예고 1학년을 마치고 독일로 유학,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독일 루빈스타인 콩쿠르(3위) 등에서 입상한 서씨는 자신의 연주 실황을 담은 DVD를 통해 심사를 받았고, 내년 3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협연한다.

동운초등학교를 거쳐 예원학교·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유학 준비중인 첼리스트 장소희(23)씨는 48회 동아콩쿠르 2등에 입상했으며 조대부고 출신으로 한양대 졸업반인 바순의 김현진(27)씨는 49회 동아콩쿠르 2등상을 받았다. 또 광주예고·이화여대를 거쳐 인디애나주립대를 졸업한 플루트의 최지혜(27)씨도 오디션에 합격했다. 장씨 등 3명은 4월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기획공연을 통해 정식으로 데뷔한다.

그밖에 전남대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오송하(33)씨는 5월 공연되는 말러 '부활'에서 소프라노 솔로를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향아 시인 17번째 시집 펴내

'물푸레나무 혹은 너도밤나무'

이향아 시인(호남대 명예교수)이 최근 열일곱 번째 시집 '물푸레나무 혹은 너도밤나무'를 냈다.

이 시인은 서문에서 "순응은 굴복이 아니다, 물론 아첨도 아니다. 자연의 질서를 알고 있으며 천분을 알고 있다는 몸짓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자연을 통해 느낀 성찰적 생의 자세와 겸손, 느림과 여유의 정서를 가득 담았다.

시집은 1부 '오래된 눈물', 2부 '나뭇잎 혀를 깨물고', 3부 '흔들리며 간다' 4부 '장미와 들꽃' 등 네 부분으로 구성했으며 세심하고 차분한 어조로 쓴 60여 편의 시가 실렸다.

서천 출생인 이 시인은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현대문학'에 시 '가을은' 등의 작품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종이 등 켜진 문간' '흐름' 등 16권의 시집을 냈고, 수필집은 10권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문학이론서를 집필했다. 경희문학상, 시문학상, 광주문학상, 윤동주문학상을 수상했다. 〈고요아침·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